

내년 국비 확보율 광주 73.8% 15위·전남 77.4% 13위

경북·부산 이어 광역단체 최하위권 ... 인천 101%로 1위

오늘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 얼마나 증액될지 주목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비율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요구했다가 누락된 예산안이 얼마나 증액될지 주목된다.

지난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예산반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국비 확보율은 15위, 전남은 13위에 그쳤다.

광주는 내년도 예산에 2조4124억원의 국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6321억이 삭감된 1조7803억원만을 반영해 73.8%의 확보율을 보였다. 전남은 7조1148억원을 요구했지만, 1조6115억원이 삭감된 5조533억원만이 반영돼 확보율 77.4%를 기록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률은 경북이 46.6%(6조956억 요구에 3조2445억원)로 가장 낮았고, 이어 부산 65.9%(4조6806억 요구에 3조842억 반영)였다. 광주의 정부 예산안 반영률은 경북과 부산에 이어 최하위권인 15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반영률 75.7%인 울산에 이어 13위에 그쳤다.

반면, 인천은 2조6678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요구액 보다 많은 2조6600억원을 반영해 확보율이 101.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이 5조7971억원 요구에 5조3939억원이 반영되면서 97.3%의 반영률로 2위를, 대전이 2조9075억원 요구에 96.1%인 2조7950억원이 반영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은 7조9157억원 요구에 92.4%인 7조3114억원이 반영돼 네번째로 반영률이 높았다.

올해 국비 예산과 내년도 정부안을 비교해보면 전남은 올해 국비 예산(6조205억원)에 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이 8.6% 줄어든 것으로, 광주는 올해(1조7664억원)에 비해 0.8% 소폭 상승했다.

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총지출(410조1000억원) 보다 28조4000억원(7.1%) 증가한 429조원 규모로 예산 증가율이 2009년 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슈퍼예산'이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의 국비 예산 반영률이 낮아지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9% 증가한 164조2000억원으로, 복지예산 특성상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도읍 의원은 "복지사업 확대에 의해 이를 매칭해야 할 지방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자체의 국비 지원을 중심으로 SOC사업을 비롯한 농수산업·문화·환경 등 정작 지역발전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너무 복지프레임에 매몰되어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무궁화위성 5A호 발사 성공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무궁화위성 5A호를 실은 '스페이스 엑스'(SpaceX) '팔콘9'(Falcon 9)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궁화위성 5, 6, 7호와 천리안위성을 포함해 총 5기의 정지궤도 통신방송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 연합뉴스

국도·국지도 예산 영남 편중 심각

윤영일 의원 "경제성 위주 아닌 도로안전성·국토균형발전 우선"을

국도(國道)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신설 및 개선사업에도 영남 편중의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 확정안에 반영된 구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계획 차수별로 분석하면 제 3차(2011~2015년) 계획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준, 가장 많은 구간이 확정 반영된 곳은 경북으로 22개 구간이었다. 다음은 충남 16개 구간, 전남은 15개 구간이었다. 이를 권역으로 재분석하면 경북과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이 35개 구간, 충청권 30개 구간, 호남권 25개 구간, 경기 14개 구간, 강원 13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4차(2016~2020년) 계획 역시 경북이 23개 구간으로 가장 많은 구간이 확정, 반영됐다. 다음으로는 경기 17개 구간, 경남 16개 구간 순이었다. 권역으로 분석하면 영남권 39개 구간, 충청 27개 구간, 호남 21개 구간 순이었다.

사업비 역시 영남권에 가장 많이 반영됐다. 제 4

차 계획의 경우 전체 예산 8조4441억원 가운데 영남권 도로 신설 및 개선 예산으로 2조5926억원이 반영됐다. 전체 예산의 27%를 웃도는 규모였다. 호남권에 반영된 예산은 1조9232억원이었다.

제 3차 계획 역시 총 사업비 9조 4626억원 중 영남권에 2조9062억원(30%)이 반영됐다. 호남권은 1조 6299억원(17%)이었다.

이처럼 국도와 국지도 신설 및 개선 예산에 영남 편중이 이뤄진 데는 '국도 균형 발전보다 경제성 위주'의 평가기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 및 확장사업의 경우 경제성 검토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토부 판단에 따라 인구수와 교통량이 많은 영남권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윤영일 의원은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아닌 도로 안전성 및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평가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도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자치구간 경제조정 속도낼까

市, 시의원 등 39명 준비기획단 꾸려

區·지방의원들 이해 달라 난항 예상

광주시가 자치구(區)간 경제조정을 위해 준비기획단을 꾸렸지만 자치구별 의견이 다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도 개최한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일 경제조정회의 세부적인 틀을 마련할 준비기획단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획단은 지난해 10월 경제조정 방침이 세워진 뒤 일부 지방의회의 불참으로 1년 만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역 및 기초 의원 10명, 시와 자치구 7명, 기관단체 12명, 정당 5명, 학계와 교육계(5명) 등 모두 39명이다. 기획단 회의에서는 자치구간 경제조정과 연구용역 계획 설명, 용역계획 의견청취, 경제조정 전반에 관한 진행 등을 담당한다.

경제조정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대상지 선정, 기초·광역의회를 거쳐 행사부에 건의하고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구간 경제조정은 지난해 4·13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구가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져 조직·재정 축소가 현실화되는 등 자치구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8석의 의석수 유지를 위해 일부 행정동(洞)이 다른 구로 편입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총선에서 동구의 경우, 동구와 남구를 합쳐 동남갑과 동남을이라는 새로운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동남갑 선거구는 봉선·월산·주월·효덕·송암·대촌동 등 기존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동남을 선거구는 기존 동구 일원에 남구 양림·방림·사직·백운동 등이 편입됐다.

이처럼 선거 때만 되면 구간 경제조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각 구청과 정치인들은 지역별 특색을 주장하며 구간 경제조정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간 경제조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진행을 보아가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일 첫 회의를 한다. 의회, 선관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1명의 확정위원을 최근 선정했고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과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선거구별 기초의원 수는 인구와 법정동 수를 토대로 배분한다.

지난 총선에서 인구 상한(28만명)을 넘는 광주 북구(29만5000여명)는 오지 1·2동과 임동을 북구 갑에 떼어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숫자 조정이 불가피하다. 과거 14개 동이었던 북구갑은 8명, 13개 동이지만 인구가 많았던 북구을은 10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했는데 선거구 조정으로 북구갑이 17개동이 되면서 북구갑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일정	모집군	전형유형	모집인원	
2017. 11. 15.(수) 09:00 ~ 11. 17.(금)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www.jinhakapply.com)	나군	일반전형	52명	합계
		광주·전남지역고교/대학출신전형	23명	
		합계	75명	

※ 2017학년도 : 특별전형 지역대학(15명), 지역고교(8명) 모집
→ 2018학년도 : 특별전형 통합 모집

선발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배점				합계
		PEET성적	영어성적	학부성적	심층면접	
1단계	300%	600점	100점	100점	-	800점
2단계	100%	800점(1단계 점수의 합)			200점	1,000점

※ 2017학년도 : 자기소개서 활용하여 인성평가 평가 → 2018학년도 : 자기소개서 폐지하고, 인성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

약학과 입학우수장학금

구분	장학금	선발기준
입학우수장학생 1	4년간 등록금 전액	PEET 전 영역 백분위 평균 상위 3% 이내
입학우수장학생 2	4년간 등록금 1/2	PEET 전 영역 백분위 평균 상위 5% 이내

유사선수과목 인정심사 안내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입학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전적대학, 시간제등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시험 등에 의하여 수학, 화학, 생물 계열을 각 3학점 이상 선수과목으로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계열별 선수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이 이수한 선수과목이 없는 경우 '유사선수과목인정신청서'와 '강의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선수과목 인정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 2017. 11. 01.(수) ~ 11. 07.(화) 09:00 ~ 17:00
- 제출서류 : 유사선수과목인정신청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필수)
- 결과발표 : 2017. 11. 14.(화), 개별안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 타 : 선수과목 및 유사선수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입학팀 062)230-6793
입학처 홈페이지(ibhak.chosun.ac.kr)